

“가을밤 고창농촌영화제 즐겨요”

11월 5~6일 운영 ‘드라이브 시네마 in 고창’ 참가자 모집... 29일까지 신청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드라이브 시네마 in 고창’의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22일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브 시네마 in 고창’은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기간 중 개막일인 11월 5~6일 이틀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군은 농생명문화의 시원지 고창군에 바라는 점 또는 응원 등을 기록한 수기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기 공모 신청은 고창농촌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goff.co.kr) 신청란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선정된 수기 공모자는 1회에 한하여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개막작인 ‘기적’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영화제에서 준비한 고창군 농특산물 주전부리 세트도 즐길 수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고창농촌영화제는 11월 5일부터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 시네마, 장·단편 영화 제작 공모 및 시상상 상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창농촌영화제 진기영 조직위원장(NH농협 고창군지부장)은 “드라이브 시네마 in 고창은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농촌영화제를 즐기며 고창에서 저물어가는 가을밤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DRIVE CINEMA IN GO CHANG

Information
개막식 & 드라이브시네마in고창
일정 2021. 11. 05 (금) ~ 11. 06 (토)
상영시간
- 11.05(금) 19:00 - 개막식 후 상영
- 11.06(토) 19:00 - (1회차)
21:30 - (2회차)
관람인원을 위해 18:30분까지 입장 바랍니다.
신청방법안내
신청 접수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 신청 게시
판 클릭 후 -> 드라이브시네마 in 고창 접수
문자 발송
2021. 11. 01
결과 발표 문자 개별 발송
부탁이 사항으로 취소시
최소 3일전까지 가능 하며 영도는 불가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로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 필수

고창농촌영화제 개막작 포스터(드라이브시네마).

김호석 화백 초청 ‘채용신 회화특징’ 강연

전주역사박물관, 30일 조선 말기 어진화사 활동했던 채용신 초상인물화 중심

전주역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30일 박물관 내 꽃심관에서 전 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호석 화백을 초청하여 ‘채용신 회화의 특징’을 주제로 한 강의를 연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말기 어진화사로 활동했으며, 전라도로 낙향한 채용신의 초상인물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jonjumuseum.org)에 있는 링크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063-228-6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다음 달 27일에는 ‘한국인물, 초상회화의 표현 특징과 제작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할 계획이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좌석 거리두기 및 인원 제한,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신 회화특징
초청강사 김호석
전주역사박물관 30일 문화가 있는 날은 채용신 화가의 초상인물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합니다.
코로나19 유행도 막을 수 있는 시기지만, 좋은 강의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시 : 10월 30일(토) 14:00~16:00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꽃심관
인원 : 50명
예약 :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6485)

전북새일센터-전주기전대학,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 업무협약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도내 구직여성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전주기전대학과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과 대학일자리 센터를 활용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대상자 발굴 등 실질적 상호협력에 위해 진행됐다.

특히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해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없거나, 접근성 문제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여성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북 취업지원서포터즈 운영, 청년취업 동호회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센터는 도내 거주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도내 소재 기업에 취업에 희망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경력, 학력, 연령, 경력단절기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취업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적성직업심리검사 ▲구직준비도 검사 ▲자기소개서 첨삭▲기업채용



동향 및 채용정보제공 ▲개인 이미지 관리 ▲면접지도 등이 있다.
이윤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능동적 취업연계 기회가 생겼다”며 “구인·구직정보, 직업교육훈련 안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지역의 여성들이 취업 성공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덕현 단장은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는 여성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민도예대학, 시민·관광객 대상 도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민도예대학이 시민도예체험장의 상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도자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원시민도예대학은 올 상반기까지 2,07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도자 체

험프로그램’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분청사기 기법체험으로 구성돼 도예대학 강사 4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대 사법대학 부설고 학생들은 도자체험 학습을 통해 접시에 인화, 박지, 조화 기법을 활용한 도자기를 완성해 남원도자기의 문화를 알 수 있었고 분청사기의

다양한 기법을 탐구할 수 있었다.
남원문화재단마포크내 관광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남원시민도예대학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0% 사전예약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대 30명까지 가능하고,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16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숙선 명창, 은관문화훈장 수상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정부 포상식서 국악발전 이바지 공로 인정받아



남원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 안숙선 명창(남원 산동면 출신)이 지난 22일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열린 2021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해 문화 향상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안숙선 명창은 국악발전에서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악계의 프리마돈나로 불리는 안숙선 명창은 그동안 매력 넘치는 성음, 재치 넘치는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청중, 왕창 공연과 현대적인 무대까지 두루 섭렵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후학양성 및 기관의 장으로 우리 소리를 울리게 전하는 등 국악발전에 앞장 서왔다.

특히, 남원시가 남원을 대표하는 국악전문 복합문화시설로 지난해 7월 개관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을 통해 고향에서 국악 대중화와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제8회 춘향제부터 제전위원장을 맡아 올해로 10년째 축제를 총괄하며 춘향제를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한편 안숙선 명창은 수상소감에서 “국악의 도시 남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상을 마련해 주시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우리소리를 더 쉽게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크리에이터 선발 ‘오세요 게임’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태권도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태권도원 온라인 채널에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2021 태권도 크리에이터 선발 및 영상 콘테스트’인 ‘오세요 게임’을 개최한다.

태권도 크리에이터 선발 ‘오세요 게임’은 10월 31일까지 게임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영상 제작 기획안과 제작 실현성, SNS 채널 운영 유무 등을 심사해 5개 ‘팀 또는 개인’을 먼저 선발한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태권도원을 찾아 자유로운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해 11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오세요 게임’은 유튜브 반응도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과 총상금 370만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오세요 게임’은 태권도원을 무대로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테스트이다”며 “국기 태권도 활성화와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을 함께 알릴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참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크리에이터 선발 - 오세요 게임’과 관련한 문외는 태권도진흥재단(063-320-0127)과 콘테스트 포스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
/우주=전문선 기자

전북 산림박물관, 가을 단풍철 맞이 5주간 특별개관 운영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산림문화를 선도하는 전북 산림박물관이 오는 11월 21일까지 5주간 특별 개관을 추진한다.

5주간의 특별개관 기간에는 당초 박물관의 휴관 일인 월요일에도 문을 열며,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8시~오후 6시로 확대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명의 현대미술작가가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한번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표현한 현대미술 기획전 ‘사람, 내려올 때 보이는 꽃’ 전시가 진행되며,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황상국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특별

개관으로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언제든 박물관 시설을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 관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시해설과 단체관람은 제한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관람만 허용한다.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람객 입장 시 발열 체크 ▲관람 동선 한 방향 유도 ▲2m 이상 거리두기 ▲상시 환기 ▲수시 소독 등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유효상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판촉물 기념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